



한국사회 권위주의의 뿌리를 캐는 정치학자의 현미경

《남자의 탄생》 전인권 지음 | 푸른숲 | 304쪽 | 값 13,000원

한국사회에는 밥을 푸는 데도 질서가 있다. 전인권의 표현을 빌리면, 어머니는 아버지→형→나→남동생의 순서로 남자들 밥을 먼저 푸고 누나와 여동생의 밥을 푸며, 마지막으로 어머니 당신의 밥을 푼다. 술 안에 있을 때의 밥은 밥 자체이지만 그것이 술에서 밥그릇으로 이동하는 순간 밥조차도 권력과 위계의 구도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런 점이 《남자의 탄생》이란 책을 낳은 기저로 작용한다.

정치학자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은 특별한 책이다. 여기서의 '남자'는 한국남자로 좁혀지는데, 나→가족→사회→국가로 의미망을 확장하는 데 바쳐진 '나'는 다섯 살 때부터 열두 살 때까지이다. 유소년 시절의 기억을 정밀하게 되살려내면서 기억 속의 일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의해 발생했으며, 한국남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는가를 밝혀 나간 것이 그의 이번 저작 《남자의 탄생》이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점은 이런 의미다. 유소년시절을 텍스트화해 한국남자의 권력성과 보수성의 근원을 실뿌리 파헤치듯한 분석서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서가 갖고 있게 마련인 사회 정치적 맥락의 경직된 언술에도 불구하고, 태제가 분명한 고급스런 에세이로, 그것도 아주 잘 재미있게 읽힌다는 점이다.

전인권의 '한국남자 분석'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는 한국적 필연성을 담보로 어머니의 대칭 선상에 있다. 그것은 '부모(母父)'가 영원히 '모부(母父)'로 표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쓰는 안방의 역학적인 공간분할로도 간단하게 증명된다.

안방은 하나의 공간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칸막이만 치지 않았을 뿐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해 사용한다. 안쪽은 당연히 아버지 몫이고, 아버지 공간은 늘 깨끗하다. 아버지 공간에 배치된 사물들은 《소학》, 《명심보감》, 《삼국지》 같은 '책' 과 주판 안경 라디오 등인데 이 물건들은 가지런히 정돈돼 있다. 물건을 정돈하는 사람은 어머니 혹은 아들 딸들이다. 아버지는 물건 정돈 따위의 시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편의 어머니 공간은 이와 반대다. 어머니의 공간에는 물그릇, 가위, 형겅쫂가리, 반질고리, 아이 포대기 등속이 자리잡고 있는데 대부분 너절한 상태다. 간이화장실인 요강도 어머니 공간의 품목이다.

전인권 교수는 이런 구도를 볼 때 아버지 공간은 '세상의 질서는 아버지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뜻하며, 그 공간의 주인인 아버지는 질서의 주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질서의 주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버지는 성스러운 존재이며, 완전한 존재가 되고, 아버지가 존재하는 공간은 명령하는 공간이 되며 어머니 공간은 명령수행의 공간이 된다. 여기 물 떠와라, 하면 어머니든 누나가 쪽문을 열고 나가 물을 떠다 받치고, 가서 담배 좀 사오너라 하면 '나' 혹은 형이나 동생이 담배를 사오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함께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로 산 꼴이 된다.

아버지가 권위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 아들이 나이가 차면 아버지가 된다는 점을 상징할 때 곧 '권위적인 한국남자'로 이어진다. 때문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한국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전인권 교수는 그 역할을 어머니가 떠맡았다고 분석한다. 어머니가 만든 아들의 이미지는 '동굴 속 황제'로서의 남자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는 논리를 바꾸어가면서라도 아들을 동굴 속 황제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건달 기질이 다분한 아들에 대해서는 '화끈함'에 신뢰를 보내고, 섬세하고 생명에 대해 민감한 감각의 아들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늘 보살피야 하는 모성투여 대상으로 존중했으며, 공부만 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에 대해서는 지적 허영심과 도덕적 자만심을 자랑거리로 여겨 사랑했다. 이것이 전인권 교수가 파악한 어머니의 세 얼굴이다. 아들을 동굴 속 황제로 만들어야 했던 것은 어머니의 지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전 교수는 말한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사람이 되는 길이었고,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신분상승의 한 단계였다.

이 같은 가족관계를 통해 전 교수는 한국남자의 보수성과 권위주의를 사회와 국가의 보수성과 권위주의로 연결해 간다. 이 땅의 보수성과 권위주의가 실상은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인 탓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말이 의미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 또는 '한국문화의 구조적 특징'을 학술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후 문득 '한국을 얘기하기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라도 정확히 알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비판하려고 했던 한국문화의 부정적 특징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슬픔 속에 이 책을 집필했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탄생》은 지금 40대 중반이 된 한국남자들의 보수적 남성상에 대한 앨범과 같다. 40대 중반은 자치기와 토끼잡이와 기마전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국민소득이 지상과제인 양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전 교수는 이런 삶들의 보풀까지 세밀하게 살려내면서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악동처럼, 그러면서도 아프게 지적해 낸다. 이를 테면 이런 언술, 철원 별관을 거닐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게 되었을 때를 가정해 봤다는 고백은 고백을 떠나 우리사회 가족관계의 관념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것은 수직과 수평의 세계다. 어머니가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는 굉장히 슬플 것 같다고 느꼈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망스러울 것 같았다고 그는 썼다. 여기에 그는 어머니의 죽음은 수평의 슬픔을, 아버지의 죽음은 수직의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정의했다.

'부모를 연구하는 것은 '금지된 장난'이지만 영역은 무너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나의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 것인가, 그 경로와 정도를 밝힐 수 있다면 한국문화의 특징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내 안의 아버지, 네 안의 아버지를 살해해야 한다'는 과격적 선언까지 동원한 이 책은 한국사회에 대한 미시 서사에 가깝다. 동시에 에세이 풍으로도 정치사회적 담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역설에 다름 아니다. **◆◆**

임동헌 기자